나비

2021.04.26.~2021.05.28.
나비박사가 되기까지

튼튼유치원

‘나비’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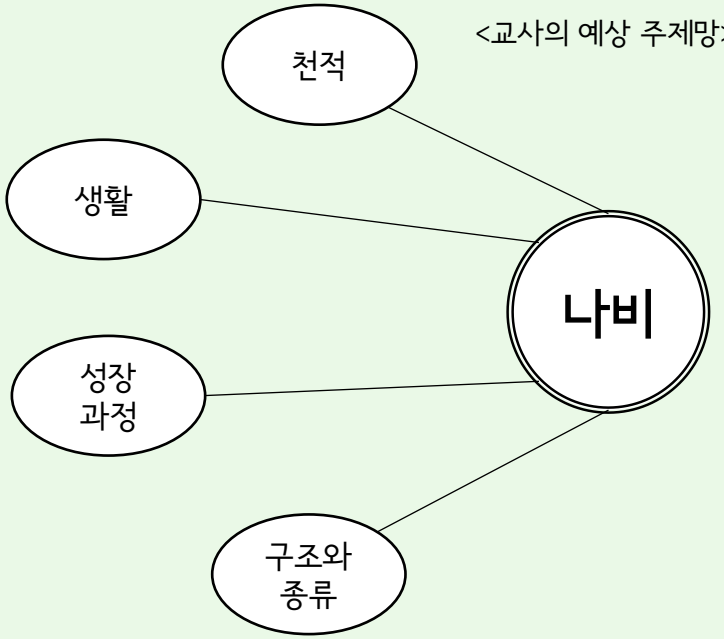
유치원 마당에 나가 봄의 날씨를 느끼며 놀이하던 아이들의 눈에 나비가 들어왔어요.

나풀나풀 날아다니는 나비를 발견한 아이들은 나비가 왜 유치원 마당에 온 것인지, 어디서부터 날아온 나비인지 궁금해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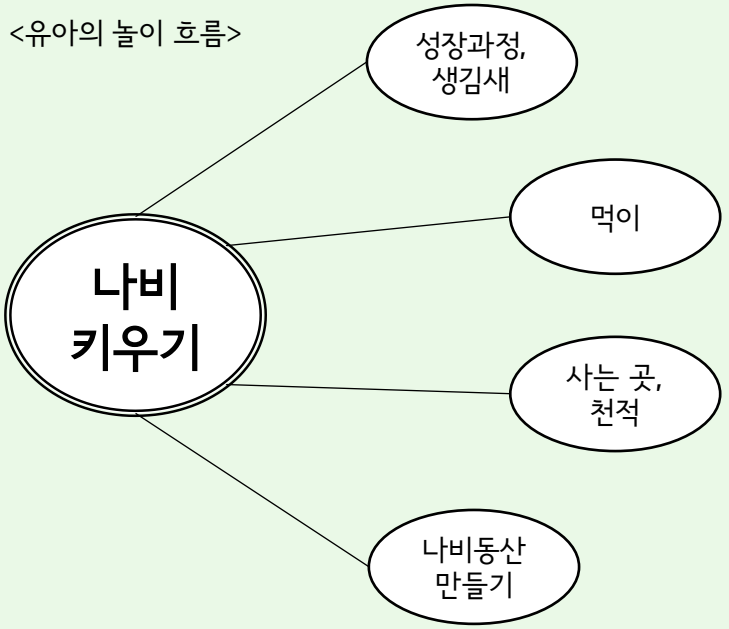
내가 예전에 봤던 나비들을 떠올리며 친구들과 바깥에 나갈 때마다 나비를 찾아다니고 교실에서도 나비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찼습니다.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흐름도(04.26. ~ 05.28.)

<교사의 예상 주제망>



<유아의 놀이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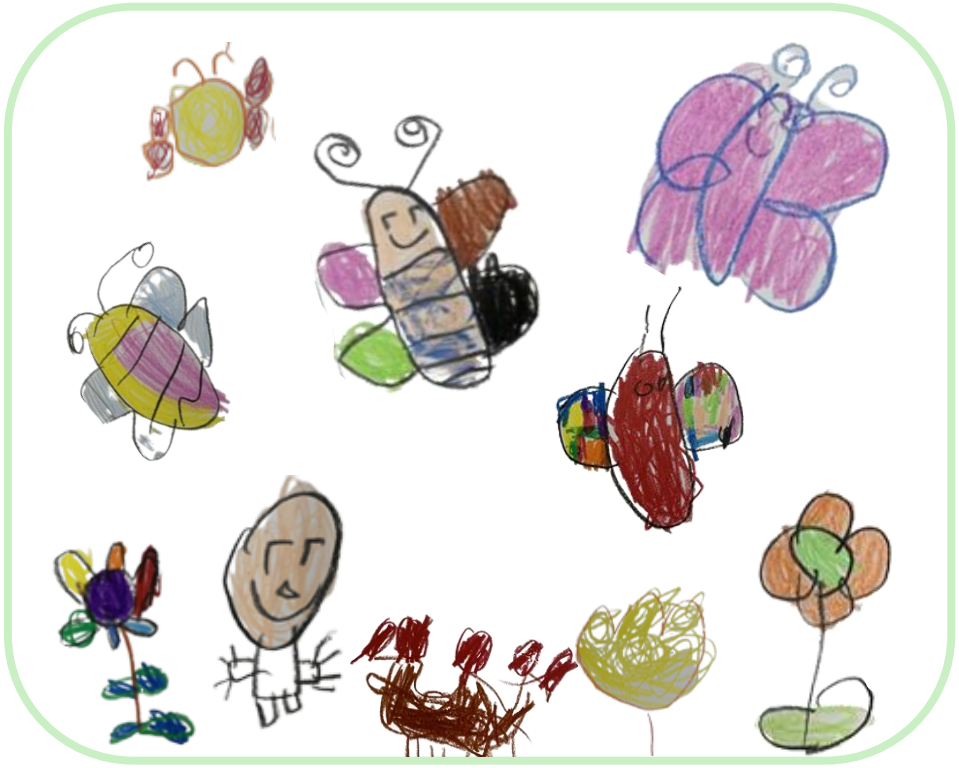
나비를 보았던 경험

"어? 나 예전에 나비 본 적 있는데!"

마음튼튼 2반 친구들은 유치원에 찾아온 나비를 보며 예전에 보았던 나비가 생각났어요.

내가 보았던 나비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서 보았는지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며 나비에 대해 관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친구들은 꽃이 있는 곳이나 유치원, 집 앞 놀이터에서 나비를 보았다고 이야기 해주었어요~



▲ "나는 꽃이 있는 곳에서 나비를 봤어."
"꽃에 나비가 앉아있었는데 내가 가까이 가니까 날아가버렸어~"
"나는 엄마,아빠랑 공원에 갔을 때 나비 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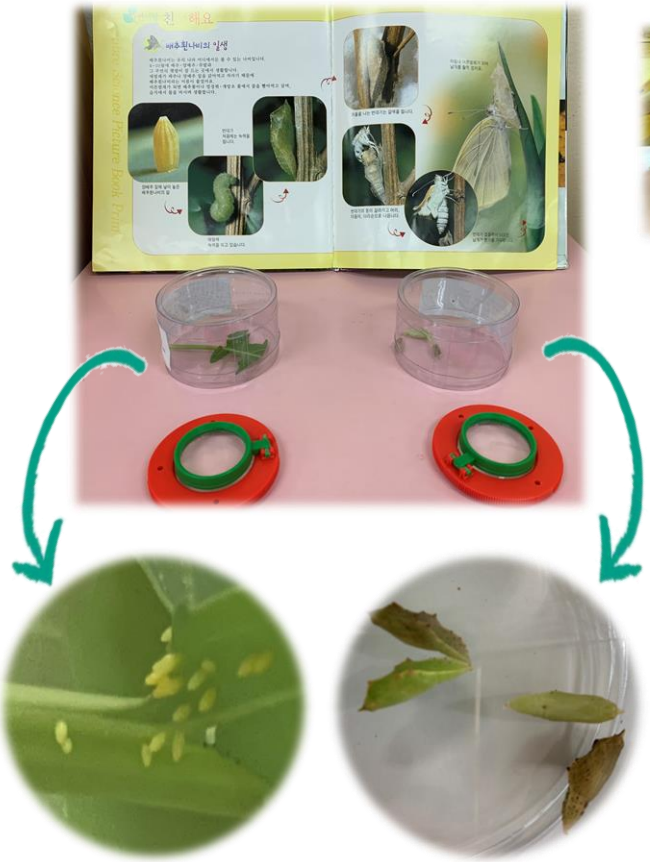
▲ "난 놀이터 미끄럼틀 위에 있는데 나비가 내 앞으로 날아갔어!"
"나는 유치원 마당에서 나비 본 적 있어, 하얀 나비"
"난 창문으로 본 적 있어~ 내가 화장실 가는데 밖에 나비가 지나갔어"

나비 키우기

"우리 흰나비를 키워요!"

배추흰나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친구들은 직접 나비를 키우고 싶어했어요. "왜 안 움직여요? 알이 어디 있어요? 너무 작아서 안보여요" 알과 번데기에 대해 너무 궁금한 우리 친구들은 책에 나와있는 사진도 보고 돋보기로 작은 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교실에 오자마자 알을 궁금해하며 알과 번데기를 확인하고 놀이 중간에도 와서 알을 관찰했습니다.



▲ 유아들이 관찰하여 그린 애벌레와 번데기

나비 키우기 II

"애벌레가 똥을 너무 많이 쌌어, 냄새 나요!, 이제 잎사귀가 거의 다 없어졌어"

알에서 깨어나 잎사귀를 먹고 자라나는 애벌레들은 똥도 많이 쌌어요.

친구들이 다함께 애벌레를 새 집으로 이사시켜주고 신선한 배추잎을 주며 번거로움도 있었지만 정성으로 보살핀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고

배추흰나비로 태어나는 성장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 우리 친구들에게는 정말 값진 경험이 되었어요.

▲ 새로운 집에 신선한 배추잎을 넣어주고 애벌레를 옮깁니다.

◀ "교실에서 계속 키워요",
"교실엔 나비가 먹을 게 없잖아"
"맞아, 그리고 하늘도 못 날잖아"
태어난 나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 지 함께 의견을 나눈 친구들은
하늘정원에 올라가 나비를 날려주기로 했습니다.

▲ 마음튼튼 2반친구들이 놀이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중에
번데기에서 나비가 태어났어요.

▲ 처음 뚜껑을 열었을 때 나비가 날아가지 않자 "우리랑 더 같이 있고싶은가봐~"라고 이야기하며 아쉬운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곧 나비가 날아가자 나비에게 또 놀러오라고 인사하며 배추흰나비를 자연으로 날려보내주었습니다.

나비의 천적

"배추흰나비는 다치지 않고 잘 살고 있을까?"

우리 친구들은 자연으로 날려 보내준 배추흰나비가 잘 살고 있을 지 무척이나 궁금해했습니다. 혹시나 다른 곤충들에게 잡아먹히진 않을지 걱정도 했어요.

거미나 사마귀 등 나비를 잡아먹는 천적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 거미줄에 걸린 나비와
나비를 잡아먹는 거미 놀이를 합니다.

▲ 천적에게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나비들을 알아보고 유치원 마당에 찾아오는 나비들을 보호해주기위해 마당에 화려한 무늬, 눈 무늬의 날개를 가진 나비를 그려봅니다.

다양한 나비 놀이

나비를 주제로 다양한 놀이를 하며 나비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하나씩 풀어나가 보았어요.

비오는 날 나비의 날개는 왜 젖지 않는지 양초로 실험도 해보고 유토로 나비동산도 꾸며주고 여러 종류의 나비의 이름도 따라써보며

우리 친구들은 점점 나비 박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 나비로 다양한 놀이를 합니다.

▲ 유토로 만든 나비와 ohp필름에 그린 나비들로 나비동산을 구성해요.

▲ 수성싸인펜으로 그린 나비 날개 반쪽에만 양초를 바르고

분무기로 물을 뿌려 양쪽 날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해보아요.

나비박사 퀴즈대회

나비에 대해 점점 많이 알아가는 아이들이 서로 퀴즈를 내며 놀이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퀴즈놀이에 점점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림책, 놀이, 질문, 나비키우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게 된

나비에 대한 것들을 퀴즈로 풀어보며 나비박사가 될 수 있었답니다.

'나비'주제를 마무리하며...

평소 야외에서 멀리서만 바라보던 나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비가 알에서부터 애벌레, 번데기의 성장과정을 거쳐 나비가 되기까지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그 기간동안 함께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성장과정과 먹이, 생김새에 대해 알 수 있었고 평소 쉽게 해보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비 주제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속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